

사진 / 남이섬 제공

사진 / 남이섬 제공

## 춘천 대표 관광지 남이섬 올 들어 필리핀 관광객 급증...한류 드라마 영향

강원 춘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을 찾은 필리핀 관광객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한국과 필리핀 합작 드라마인 '마이 코리아 자기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드라마는 필리핀의 여자 주인공이 인기 한류스타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으로 필리핀에서 높은 시청률로 방영 중이다. 드라마의 주요 배경인 춘천 남이섬과 서울 남산타워, 안성 석남사는 최근 필리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남이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방문한 필리핀 관광객은 누적 기준으로 5만1천9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한 3만978명과 비교해 67.5%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8월 886만4천182명(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중 남이섬을 찾은 비율이 13.5%에 달한다.

남이섬을 방문하는 외국인인 2008년 17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20% 이상 급증해 지난해 130만 명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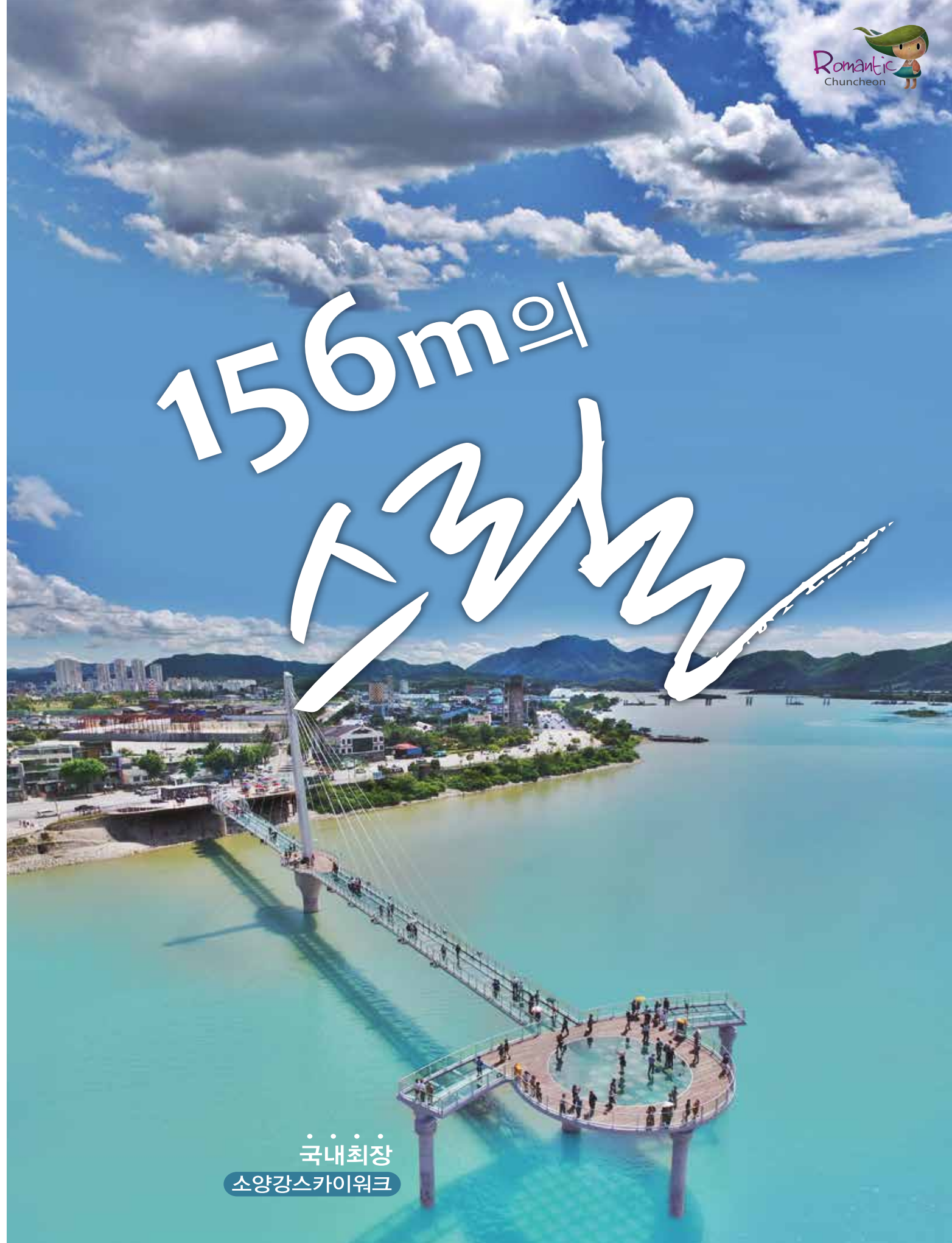
남이섬이 한류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남이섬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로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한 기도실과 음식점이 들어서기도 했다.

또 남이섬 측은 동남아 국가와의 다양한 교류 행사를 조직하고 연중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인근 관광지와 협업을 강화한 것이 외국인 방문객을 더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이섬 전명준 사장은 "10년 전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해외시장을 넓게 본 마케팅전략이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 156m의 스카이워크



국내최장 소양강스카이워크